



진주교 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19:00 06:30 (새 벽) 09:30(중고등부)
		10:30 (교 중) 13:30 (초등부, 교육관 공사기간 중)
		12:00 (낮) 19:00 (청 년) 21:00 (밤)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째 토요일 오후 4시	
혼인 강좌	매월 세 번째(토) 오후 2시~7시(6월 휴강)	
<< 매 미사 전후 고해성사 >>		

● 알 림

- 봉성체 : 1/13(금) 오전 9시부터 합니다.
- 구역 외 신자는 달력을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대림 저금통을 아직 내지 못한 분들은 사무실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운동장에 주차할 때는 다른 차량의 입·출차를 위하여 기어를 중립에 놓아 주십시오.
공사로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차량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물방 이용시간 안내

(화), (목)	오전 10:30 ~ 12:00
주일(일)	오전 09:30 ~ 오후 2시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2017년 1/1 (오늘)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09:30(중고등부), 10:30, 12:00 13:30(초등부), 19:00, 21:00 (6:30 미사 없습니다.)
----------------------	---------------------	--

● 예비신자 교리반

(일) 낮 12시	김선희 안젤라
(화) 저녁 8시	박정우 세례자요한 신부님
교리반 등록	12/11 ~ 2017. 1/15(일)까지
세례 예정	2017년 8월

*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권면하여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 모 임

모 임	일 시	장 소
· 위령봉사회 월례모임	1/1(일) 낮 12시	보스코홀
· 제대회 월례모임	1/3(화) 오전 11시	1교리실
· 사목위원회	1/6(금) 저녁 8시	지하강당
· 성모성심회 월례모임	1/7(토) 저녁 8시	지하강당
· 임원모임 (반, 구역장, 형제회장, 사목위원)	1/11(수) 저녁 8시	지하강당
· 꾸리아 월례모임 10u	1/15(일) 오후 2시	지하강당
20u	1/15(일) 오후 4시	지하강당
30u	1/15(일) 오후 6시	지하강당
40u	1/15(일) 오후 8시	지하강당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월례미사와 영성강좌, 안수
 - 일 시 : 1/2(월) 오전 10시~ 12시
 - 주 제 : “새해를 맞이하여”
 - 강 의 : 염동규 도미니코 신부님
- 16지구 여성 구역장·반장 신년하례 미사
 - 일 시 : 1/10(화) 오전 10시 30분 시작
 - 장 소 : 신도림동 성당

● 자녀들을 위한 기도모임

- 일 시 : 1/13(금) / 저녁 8시
- 장 소 : 쉼터방

※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모임입니다.

* 교육관(소성전) 리모델링 공사 *

- 공사 개요

- 교육관(소성전) 성전 및 교리실 내부 공사
- 공사기간 : 2016. 12~2017년 3월말 (예정)

- 유·초등부 미사 및 가정간호사 실, 교리실 안내

- 유·초등부 미사 : 대성전 / 13:30
- 가정간호사 실 : 대성전 제의실 옆방
- 교육관에서 갖는 각 단체 모임은 본당 교리실을 사용하는 단체와 협조 또는 비는 시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성전 구역 청소는 14:30에 합니다.(초등부 미사 후)
-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차량과 자재의 이송 및 보관을 위하여 주차공간을 축소할 예정이니 협조 바랍니다.
- 국수 잔치 : 공사기간 중 쉽니다.
- 주보 접기 : 6교리실

● 구역미사 및 형제회 모임

- 전반기(3~6월) 한번, 후반기(9~12월) 한번 1년에 2번 구역별로 미사가 거행됩니다.
- 구역, 반모임, 형제모임은 구역별 실시합니다.

● 다음 주일(1/8) 청소

청 소	24구역
-----	------

※ 청소는 14:30부터 합니다. (초등부 미사 후)

● 성체 분배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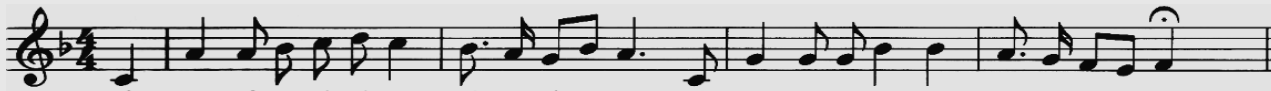
날짜	특전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1/1	김봉기	김광수	손상민 김영배 김인기	박용환	최승일
1/8	박승환	박형순	박홍식 오광운 이계명	이운영	최상남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 17,164,000원
- 주일헌금 (12/25) 11,566,750원
- 불우이웃을 위한 대림저금통 4,415,000원
- 빈첸시오 불우이웃돕기 성금 1,917,000원
- 건축헌금 (교육관)
 - 이주화30만원 안옥순10만원 강○○10만원
 - 영금선20만원 김종란100만원 윤순득40만원
 - 이상분 2만원 이혜경20만원 박주은20만원
 - 강계화 6만원 홍종만 5만원 진상진 5만원
 - 진상민 5만원 황원선20만원 지영요10만원
 - 지성진20만원 이종주10만원 박영자10만원
- 감사헌금
 - 송영선 5만원 최현식 5만원 장연순20만원
 - 김진상 5만원 김소임10만원 신기자 5만원
 - 김현철10만원 홍종만 5만원 익 명 21만원
 - 이순규 5만원

● 주보 7면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회답송

하 느 님은자비를 베푸시-고 저 희 에게복 을 내 리소-서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날짜	해 설	복 사	독 서
1/1	이은희	도현문 심재순 김영길 서윤석	안상록 정정숙
1/8	이인옥	이응남 오성한 신종구 최상림	박영호 정재경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24. 누가 교회의 사회 교리를 확정하나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교회의 사명과 카리스마에 일치하며 사회 교리의 생성에 참여합니다. 사회 교리의 원리들은 교회의 중요한 문헌에서 다듬어 표현되었습니다. 사회 교리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교도권 즉 교황과, 교황과 결합되어 있는 주교들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지를 교회와 인류에게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 나이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가 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많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53항**

25. 교회의 사회 교리는 어떻게 생성되었나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는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회 교리’는 레오 13세 교황의 <새로운 사태> 이후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교도권이 응답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19세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이 아니라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노동 재해 방지, 의료 보험, 휴가를 받을 권리등이 없었고 어린이 노동이 자주 강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레오 13세 교황은 특별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의 개요를 간략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교황들은 항상 새롭게 ‘시대의 징표에 대해 응답했고, <새로운 사태>의 전통 안에서 특별히 절박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모인 가르침을 사회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황 문헌, 공의회 문헌, 교황청 문헌 등의 교회의 보편적인 견해 외에도 주교회의의 사회 선언 등과 같은 지역적 견해도 교회의 사회 교리라고 부릅니다.

26. 그래서 교회는 개인에게만 관심을 두지 않나요?

이전에 사람들은 교회가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 둔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하느님 앞에서 각각의 개인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머니의 배속에 있을 때부터 다른 사람과 친교를 나누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선한 관계를 맺을 때에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창세 2, 18) 하느님은 인간의 온전한 행복에 관심을 두시고, 인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 곧 공동체의 발전에도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7. 왜 교회는 연대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나요?

연대하지 않는 교회는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연대가 계속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계속 이어져야 하고, 마침내 모든 인간에게 다다라야 합니다.